

건축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역정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동도서기’라는 윤리

오늘날 한옥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옥거리가 늘어나고 한옥마을이 생겨나는 호숫함에 가슴이 벅찬 사람도, 전통구법이 대체되고 현대기술이 침범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모두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 위대한 한(韓)민족의 혼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원은 적어도 두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이념이다.

19세기 후반 ‘동도서기’의 발상은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 공통의 대응전략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으로,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로 부르는 말이 각각 달랐지만, 주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공고히 하면서 서양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자는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 근대사상과 과학문명이 실제로는 한 덩어리였던 것을 애써 무시하고자 한 방어적 기제로써 온건한 개화파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동도서기’는 서양이라는 거대한 이질성을 인식하고 난 다음의 반응이었다. 한국건축사에서 이러한 이질성은 먼저 중국건축을 통해 다가왔다.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다른 건축을 접한 서울 지역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가옥이 옆 나라의 가옥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원래 가옥(家屋)이라는 말은 형태나 양식과는 무관하여 국경이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경험은 가옥을 중국식[華制]과 한국식[東制]으로 구별하는 인식을 만들어냈고, 단단하고 실용적인 중국식 건축은 누가 봐도 앞선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건축 동도서기는 탄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矩, 1764~1845)가 건축 등에 관한 백과사전을 집필하면서 시작한 말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섬용지(贍用誌)」는 13개의 목차로 구성하였으나 하나라도 한숨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첫머리에 나오는 건물 짓는 법과 재료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선각자들은 한국건축의 문제점과 폐해를 정리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예를 들어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은 한국의 온돌 만드는 법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서유구는 이에 여섯 가지 폐해를 더하였다.

나아가 풍석은 우리나라 건축물 배치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중국건축처럼 一자형 건물이 아니라 ‘口자 같거나 日자처럼 되기도 하고 혹은 丿자 둘이 마주하는 것처럼’ 놓인 한옥은 무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지세를 따라야’ 하였고, 온돌의 경우도 ‘오래도록 방에서 살아와서 지금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흐르는 기와[溝瓦]를 사용한다거나 온돌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결과적으로 풍석은 한옥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벽돌이나 기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택개량안을 구상하였다. 중국의 기술은 한옥의 바깥을 감싸거나 온돌의 높이를 쉽게 맞추는 정도에서 한옥에 적용되었고, 19세기 중반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된 석파정(石坡亭) 사랑채에서 볼 수 있는 절충주의 건축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해법은 건축 동도서기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좋은 기술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개량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유구 저, 정명현·이동인·이강민·김태완·최시남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2016, 섬용지 서문

** 이강민, “서유구의 건축론과 현대적 활용성”, 「풍석 서유구 탄생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14.5.9.



석파정 사랑채 (19세기 중반)

정반대의 시도들

한국건축사에서는 정반대의 시도들도 발견된다. 서양의 사상을 한국의 그릇에 담아 보려는 발상은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실천되었다. 한옥 교회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꾸준히 지어졌다. 한옥 교회는 한국건축의 평면을 90도 회전시켜 박공면을 입구로 하고, 실내 기둥을 지붕 위로 높여 바실리카 공간을 재현하였다. 이에 십자가와 종탑을 추가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건축유형을 완성시켰지만, 익공이나 창호 등 목구조 세부, 단청이라든지 기와의 색상은 매우 익숙한 우리 전통이었다.

1900년에 지어진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도동기’의 가장 솔직한 사례일 것이다. 전체 건축과정을 지휘한 트롤로프 신부(Mark Napier Trollope, 1862~1930)는 처음에 한옥 임시공소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기금이 모일 때마다 직접 자재를 구입하였는데, 도리·장여·인방·창방 등 정밀한 부재 명칭과 단위를 기록한 문서들이 남아 있다. 트롤로프는 건축가이던 아버지의 영향과 탁월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한옥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할 수 있었으며, 초기 기독교 건축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스스로 토속건축으로부터 고급건축양식을 발전 시키기를 바랐다.*

* 강영지·우동선,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 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의 건립 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2, no.06, 2016.



성공회 강화 성당 (트롤로프, 1900)

그러나 강영지·우동선(2016)의 연구는 ‘트롤로프 신부가 보여준 건축 과정에서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성공회 전례(典禮)의 온전한 구현은 사실상 건축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작은 기물들에서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제단과 성수대는 중국인 석수에게 제작을 맡겼고, 커튼과 벽걸이 등은 영국인 수녀가 지휘하였으며, 장식쇠·자물쇠·손잡이와 단풍나무 목재 등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였다. 특히 아치형 출입문 4개는 온전하게 영국산 목재와 철물로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적인 위생과 환경 개념, 근대적인 가족 개념을 습득한 건축가들이 한옥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또한 유사한 사례이다. 건축가들은 당시 ‘문화주택’이라 부르던 서구식 주택평면을 염두에 두고 재래식 한옥의 개량안을 모색하였다.* 중정을 둘러 건물이 배치되는 재래식 한옥은 채광·통풍·위생에 불리하기 때문에 실들이 가운데로 모이고 주변에 공지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한옥이 개량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형 평면은 현관과 복도를 이용해서 집 안의 동선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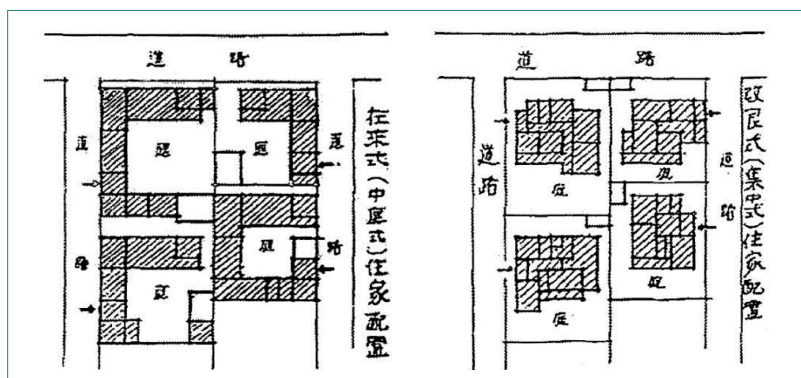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트롤로프 신부는 다음의 건축 작업인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한옥의 기법을 포기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채택하였다. 서울의 한옥 주택은 1960년대의 마지막

* 박용환,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pp.35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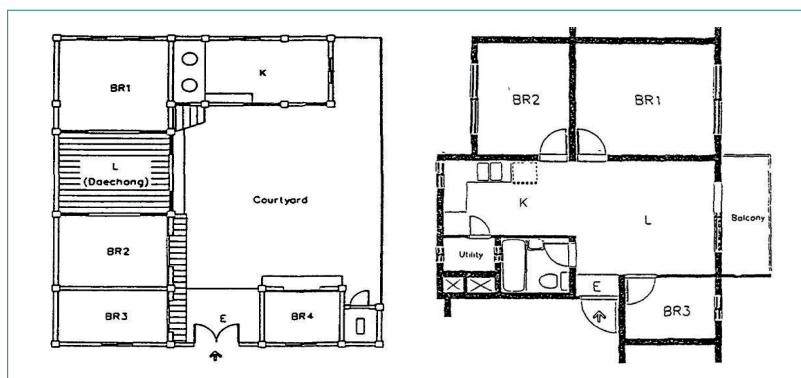
순간까지 중정형 배치가 흔들린 적이 없으며, 집중형 평면은 ‘양옥’에만 적용되었다. 한국의 목조기술은 처음부터 열악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개량을 통해 서구의 석조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된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한옥의 기법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임시적인 것, 서민적인 것, 중도적인 것으로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다.

동도서기의 성취

기술이나 형식과는 달리 관습이나 세계관은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민족 정체성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신을 우선시하는 ‘동도서기’의 기치는 빛을 잃을 수 없었다. 급속하게 서구화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어떻게든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한국 현대건축사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성



재래식(중정형)과 개량식(집중형) 평면배치 (박길룡, 1933)



도시한옥과 아파트의 평면 비교 (최재필, 1992)

립시켰다. 다만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취되었고, 어떤 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건축 동도서기의 자연스러운 성취는 주택에서 이루어졌다. 따뜻한 바닥에다 신을 벗고 생활하는 한국인의 생활양식은 소파·식탁·침대·양변기 등 입식생활의 요소들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의 모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은 아파트에서 거실중심형의 평면으로 되살아났다.* 한국의 주택은 가장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로 지어지지만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공간구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다.

종종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한 사건은 한국정신의 상징으로서 한옥의 외관을 현대건축에 덧씌우는 일이었다. 한동안 유행한 콘크리트 한옥은 건축의 전통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여긴 사례이다. 그러나 1960년대의 국립종합박물관으로부터 1980년대의 독립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콘크리트 한옥은 건축가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 곡선의 기와지붕과 배흘림기둥이 한국정신을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태에는 감추고 싶은 역사의 부끄러움이 함께 붙어 있어서 보기에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정신은 형태가 아닌 무형의 것으로 투영되어야 하였다. 단정한 삶의 태도, 자연과 조화하려는 노력,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등은 추상화된 ‘공간’에 대응하였다. 한옥 건축의 정신은 형태와 질감이 배



독립기념관 (김기웅, 1987)



수졸당 (송효상, 1992) 현관부

제된 공간들의 관계로 간주되었다. 건축가들은 철저하게 서양의 언어와 문법으로 한옥 공간을 번역하였다. 형태가 공간으로 치환되면서 비로소 건축 동도서기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절정과 역전

1992년 승효상이 설계한 ‘수출당’은 1980년대 이래 우리 건축계의 한국성 추구의 한 단계를 완결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옥의 공간관계는 콘크리트로 새 생명을 얻었다. 숭고한 한국정신과 국제적 건축기법이 결합하여 20세기 한국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주택작품이 탄생하였다. 수출당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ㄷ자로 둘러싸는 도시한옥의 공간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었고, 부엌 옆의 뒷마당과 문방 뒤의 흙마당은 현대 설계기법이 아니었으면 이 규모의 주택에서 구현될 수 없는 전통 공간이었다.

그런데 수출당에는 기막힌 반전이 있다. 집주인인 미술평론가 유홍준이 젊은 건축가 승효상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서도동기’였다는 점이다. 유홍준은 ‘생활하는 것은 아파트 구조의 편리함, 분위기는 한옥의 아늑함을 합성’하도록 정확하게 ‘서도동기’라는 용어를 써서 주택설계를 의뢰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에서 청빈의 사상에 주목하였고, 이를 ‘빈자의 미학’으로 발전시킨 승효상이 마침내 완성한 ‘동도서기’는 정반대의 이상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

유홍준이 ‘동도서기’를 폐기하고 ‘서도동기’를 생각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0년 동양의 문화사에서 이 주장은 별스러운 성과도 없으면서 그 이상만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실천적 추진력은 이미 상실할 정도로 우리는 서구화되었고 모더니즘화되어 버렸다.” 즉 100년 동안 도(道)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축으로 삼는 것은 현대와 모더니즘으로 하고, 거기에 잃어가는 동양의 정신과 전통의 가치를 살려 보는 길’을 모색한 것이 유홍준의 ‘서도동기론’의 요체이다.

* Jaepil Choi,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Prospects on Housing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대한주택공사, 1992.

** 유홍준,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학동 수출당기”, 『월간 건축문화』, no.146, 1993-07, p.113.

이처럼 주인 행세를 해야 할 한국정신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더 이상 고유하고 독자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많은 건축가들이 영감을 받았던 선비정신은 이제 서구 프로테스탄티즘의 변주로 받아들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닮았다. 올바른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동서양의 구분은 경계가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윤리는 여전히 강고하고, 이에 따라 동양의 그릇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옥현상의 위치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대두된 한옥에 대한 높은 수요와 그에 따른 민·관의 대응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는 ‘한옥현상*’은 건축 동도서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옥현상은 1970년대 이후 전통 논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성 모색의 과정을 잇고 있는 듯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건축·사회·정책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해 한옥을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를 낳은 듯 보인다. 국가의 예산으로 한옥 설계를 수감한 건축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지자체의 꽤 많은 지원금은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바꾸었다.

21세기 한옥현상의 추동력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건축의 발전과정에서 전통과 민족의식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두 세기 전의 맥락을 잇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대상이 모르는 사이에 역전되었다. 즉 한옥현상은 동도서기의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서도동기의 실천으로 요약된다. 유사 이래 가장 서구적인 국민들이 가장 한국적인 건물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재료·형태·문양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건축 동도서기의 역정은 동과 서, 도와 기의 상호 치환을 보여준다. 한옥의 공간, 형태, 재료는 정신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면서 현대 한국건축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조합들은 위대한 해법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다음 국면으로 과업을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릇의 관계에도 의구심이 생겨났다. 건축이 정신과 그릇으로, 또는 본질과 기능으로, 혹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 이강민, “특집: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ol.60, no.08, 2016.08, pp.20-23.

물을 옮겨 담듯이 세계관과 행동을 서로 다른 공간과 재료에 이식할 수 있다는 사고는 제국주의적인 근대정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신이 마치 DNA처럼 건축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건축의 부분을 떼어다 옮기면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던 것이 한 가지 국면이라면, 정신이 본질이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도 좋다는 것은 또 다른 국면이었다. 이러한 태도들은 최근 한옥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한옥건축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옥현상에 거는 희망은 그것이 한옥의 온전한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옥현상은 세속적 형태나 추상적인 공간을 분리해내지 않고 한옥을 짓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 동도서기의 역정이 공통적으로 한옥의 내용과 형식을 분해한 뒤 취사선택하는 것을 관습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 또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 이를 극복한다면, 최근의 한옥현상은 한국건축의 미래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영지·우동선(2016),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 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의 건립 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2, no.06.
- 2 박용환(2010),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 3 서유구 저, 정명현·이동인·이강민·김태완·최시남 역(2016),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 4 유홍준(1993),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학동 수졸당기”, 『월간 건축문화』 7월호, no.146.
- 5 이강민(2014), “서유구의 건축론과 현대적 활용성”, 『풍석 서유구 탄생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6 이강민(2016), “특집: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vol.60, no.08. 대한건축학회.
- 7 Jaepil Choi(1992),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Prospects on Housing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대한주택공사.